

# 수해지역 긴급복구대민봉사활동 펼쳐

## 침수가옥, 침수 보일러 점검 및 무상수리

강북지회(지회장 송용곤)는 지난 7월 16~19일, 회원 20여명과 함께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강북지역의 30여 채의 침수가옥을 수리하고 보일러를 점검·무상수리 하는 등과 함께 대민봉사활동을 펼쳤다.

송지회장은 “우리 회원들이 피해가옥을 수리하고 보일러를 점검·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까지 보수된 것 같아 깨끗해짐을 느꼈다. 어려운 이웃을 내일처럼 도와주는 협회의 또 다른 존재이유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기능기술자’라는 자부심을 세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진현귀 총무는 “처음에는 망설였던게 사실이지만,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니 마음까지 후련하고 따뜻해지는 것 같다. 보일러 수리 후 시운전되는 모습을 본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시공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기뻐했다.

피해주민들 또한 “과시용 봉사가 아닌 진정한 봉사를 펼쳐 주어 방바닥만 따뜻하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까지 따뜻하게 해주었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민봉사활동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순조롭게 이뤄졌으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모든 회원들은 내일처럼 모든 일을 제쳐두고 수재민과 아픔을 함께 나눴다.

